

## 법무매거진

# 법관대표회의 ‘관사 부족 문제에 깊은 우려… 인력 증원 시급’



전국 법원의 관사들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루 빨리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공판중심주의 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들은 최근 첨단 분야에서의 소송이 늘어 사건이 복잡해지고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관의 업무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늘어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관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대표들은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재판을 맡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이후 법관의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지는 등 인력 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경력 법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돼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 등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출처/조선일보)